

# 시사 만평부터 생활 웹툰까지... 만화, 시대를 이야기하다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 우리시대 만화가 열전

한창완·박민하 지음

미국의 어느 유명한 목사가 상월 의원에 출마했다가 시사만화가의 만평 때문에 낙선한 사례가 있다. 만화가는 목사의 비리나 인간적인 문제에 대해 한 톨의 만평으로 비판했다. 낙선한 목사는 만화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지만 미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만화가 대중에게 보여주는 의미는 모두 열려 있다'고 판결했다. 만화가 갖는 비판 기능은 물론 과장 등 은유화된 유포 효과를 인정한다는 의미였다.

지금까지 만화는 도전적인 소재와 실험정신으로 다채로운 메시지를 전달해왔다. 만화가들은 시대의 장벽에 주저앉지 않았다. 때로는 이념과 탄압의 굴레를 극복하며 독자들을 향해 의미있는 작품들을 선보여 왔다.

한창완 세종대 만화애니메이션학 전공 교수와 만화 평론가인 박민하 서울웹툰아카데미 이사장이 펴낸 '우리시대 만화가 열전'은 독자들이 애정한 37명의 만화가들을 소개한다. 국내 1호 만화이론 교수 한창완과 박민하가 들려주는 만화가들의 삶과 작품 세계



는, 만화는 곧 '시대'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고 김종필 의원이 국무총리 이던 시절이었다. 모 신문에서 시국에 대한 비판을 하기 위해 당시 유행하던 드라마 여주인공으로 표현한 적이 있다. 기자가 이에 대해 불편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했다. 그는 "만화가 날 그리면 난 살아 있는 겁니다"라고 답한 바 있다.

한 교수는 "살아 있는 정치인의 존재 근거가 만평의 표현이라는 노정객의 한마디는 만화가 갖는 시대의 자존감을 그대로 보여준다"며 "만화의 시대성은 항상 도전적인 소재와 실험적인 장르를 통해 급변하는 메시지의 다양함을 제시했으며, 그때마다 스타 작가들의 작품은 시대의 선물처럼 등장했다"고 말한다.

박평론가는 "만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매체로 존재하는 만화를 바라보아야 한다"며 "표현의 매체로 존재하는 만화의 가장 큰 특징은 당대를 치열하게 반영한다는 점"이라고 언급한다.

책은 194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이르는 만화가들의 주요 작품

등을 토대로 기술돼 있다. 먼저 1940~1960년대 작가들로는 김성환을 비롯해 고우영, 김장덕, 김산호, 박수동, 이상무, 이두호 등을 꼽을 수 있다.

지난 1955년 7월 '동아일보'에 실린 '고바우영감'은 한국전쟁 당시 청년 김성환이 다락방에서 숨어 그렸던 네 컷 만화다. 우리나라 최장기 연재 기록될 만큼 인기를 끌었다. '고바우영감' 탄생 50주년 기념우표 발간, 세계만화대백과사전에 한국 만화가로 유일하게 등재됐다.

이밖에 '만화의 문학적 도전과 성인 만화의 뉴노멀'이었던 고우영, '한국 명랑 만화의 보물섬'이었던 김장덕, '격랑의 시대에 독고탁으로 마구를 단 책'인 이상무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1970~1980년대 데뷔 작가로는 백성민, 허영만, 김동화, 김수정, 이현세, 김혜린 등이 있다. 80년대는 잡

지 발간이 붐을 이루면서 만화계에 불멸의 스타들이 탄생했다. '아기공룡 둘리'의 김수정은 한국 캐릭터 산업의 시작을 알렸고, '공포의 외인구단'의 이현세는 방황하는 청춘의 해방구를 그렸다.

1990년대 데뷔 작가로는 문홍미, 윤태호, 이빈, 손희준, 박배수, 홍승우 등이 있다. 윤태호는 사회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과감하게 재현했는데 신선함과 도전정신으로 '이기'와 '미생' 같은 작품으로 주목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2000~2010년 데뷔 작가는 '장편 시사 웹툰의 개척자' 강풀을 비롯해 소재는 대중적이지 않지만 대중적 캐릭터를 만들어가는 김보통 등이 있다. 이밖에 조석, 하일권, 심홍아 등이 있다.

박민하 평론가는 "만화는 시대를 드러내는 여러 DNA를 품고 그 시대를 드러낸다"며 "만화는 시대라는 걸 많은 사람들에게 이 책을 통해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행성B-2만7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고바우영감'은 경무대 풍동사건 등 해학과 풍자를 버무린 에피소드로 전 국민적 사랑을 받았다. '고바우영감' 표지와 만화컷(©김성환)

◀ 웹툰 '마음의 소리'로 인기 작가의 변역에 오른 조석은 마법 같은 섬세한 유포와 즐거기가 담긴 새로운 장르와 캐릭터를 창조해가며 밀레니얼 세대와 소통하고 있다. '마음의 소리' 표지와 만화컷(©조석)



## 정의의 길, 세 개의 십자가

김삼용 지음

올해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출범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다. 지난 1974년 천주교 원주교구 교구장이었던 지학순 주교가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된 것을 계기로 결성됐다.

정의구현사제단은 지난 1987년 서울대 학생이었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폭로해 6월 항쟁 계기를 만들었다. 또한 70년대와 80년대 유신헌법반대운동을 비롯해 긴급조치 무효화 운동, 광주민주화운동 등 군사독재에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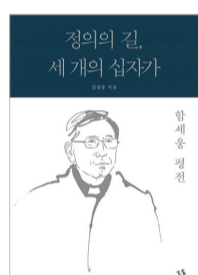
그 중심에 함세웅 신부가 있었다. 함 신부는 정의구현사제단 창립을 주관했으며 사제 신분으로 민주화운동에 뛰어 들었다. 박정희 정권 시절 두 차례 투옥됐으며 1979년 10·26 때도 수감돼 있었다.

지난 50년간 불의한 권력에 맞서 싸우면서도 억압받는 이들의 버팀목이었던 함 신부의 평전이 나왔다. 독립운동사 및 친일반민족사연구가 김삼용 전 독립기념관장이 펴낸 '정의의 길, 세 개의 십자가'는 한 평생 민주주의의 한 길을 걸어왔던 함 신부의 삶과 사상 등이 망라돼 있다.

저자는 "30대에 정의구현사제단을 조직하고 민주회복국민회의 대변인으로 역사의 무대에 섰을 때나 50년이 지난 지금이나, 여전히 생기고 활기차게 활동하는 그의 모습은 우리 사회에서 거의 '유일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평한다.

책은 소년 시절이 사제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비롯해 재야의 대변인으로 유신독재에 맞서던 시절 등을 담고 있다. 또한 6월 항쟁 마중물 역할을 했던 시절을 비롯해 민족사적 반성과 남북통일의 꿈에 관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소동·2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프랑스 음식 여행

배혜정 지음

재미있는 에세이와 맛있는 레시피가 있는 프랑스 집밥 이야기가 책으로 나왔다. 프랑스 요리 연구가 배혜정이 쓴 '프랑스 음식 여행'은 저자가 프랑스에서 7년간 살며 매일 해 먹던 집밥, 국내에서 10여 년간 프렌치 레스토랑과 쿠킹 클래스를 운영할 때 인기 있었던 메뉴, 프랑스 곳곳을 여행하며 맛본 지역 음식 등 '진짜 프랑스 가정식'의 본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책이다.

저자는 프랑스에서의 삶이 익숙해지고 그들의 식생활을 찬찬히 들여다보니 보통 프랑스 가정에서 쓰는 식재료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이야기한다. 난생 처음 보는 재료도 있었지만 대개는 일상적인 재료를 언제, 어떻게, 어떤 요리로 해 먹느냐의 차이였다.

프랑스 주방들이 가정에서 준비하는 집밥은 주로 단골 빵집에서 사 온 바게트와 시장에서 사 온 잎채소로 만드는 샐러드, 다양한 뿌리채소와 열매채소를 이용한 음식, 오일과 버터가 들어간 생선요리, 와인에 꼭 조린 스투 등이었다. 휴일에는 전통처럼 내려오는 '선데이 닭'을 굽고 그뤼에르 치즈를 넉넉히 덮은 그라탱을 만들어 가족들과 나눠 먹으며 와인을 곁들이기도 한다.

책은 네 개의 장으로 나뉘어 채소를 이용한 프랑스 가정식, 든든한 단품 한 끼, 치즈와 와인과 디저트, 프랑스 문화에 담긴 맛과 관련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각 내용별로 프랑스 가정식 레시피가 들어 있다.

46가지 레시피의 난이도는 쿠킹 클래스 초보자들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프렌치 토스트부터 현지 로컬 식당에서 내놓는 뷔프 부르기뇽, 코코뱅 등 전문적인 음식까지 망라한다. 음식 재료는 국내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 위주로 선정했으며 프랑스 음식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와인도 함께 매칭했다.



<오르골·2만원>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 음악, 밀당의 기술

이미경 지음

합창 아티스트 '단말릭'의 랩을 듣고 있으면 섹스와 여린박의 규칙성을 의도적으로 뒤바꾸는 싱크로페이션, 박자를 뒤로 밀 듯 타는 레이백 기법이 떠오른다. 클래식에서도 마찬가지... 리스트의 '위로 3번 D장조'에는 정갈한 왼손 아르페지오 반주에 맞춰 8:12, 8:6박의 오른손 엇박자가 등장한다.

이들은 모두 일상불안하게 정박에 따라 프리에즈를 채우는 모범생 스타일의 정박은 아니지만, 엇박이 만드는 이탈 감각은 교유의 미감을 자아낸다.

음악의 미적 원형 중 하나로 '박(Beat)'을 제시하는 책이 나왔다. '음악, 밀당의 기술'을 펴낸 이미경은 서울대 작곡과에서 학·석사를 마치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예술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전남대 음악교육과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박의 엇갈림은 오케스트라 앙상블에서 제1 바이올린이 주도하는 리더십에 절대적 종횡지를 고뇌하는 다른 연주자들의 내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코르넬 연주자들의 개성과 차이는 또 어떠한가. 존 케이지의 'Organ2/ASLSP'라는 곡을 연주할 때 저마다 생각하는 'ASLSP(가능한 한 느리게)'는 모두 다르다. 물론 이를 하나로 조율하는 것 또한 역설적으로 박의 역할이라는 논지는 흥미롭다.

저자는 음악 연주 과정에서 의식적·무의식적으로 발생하는 동조에 대해서도 알려준다. 그 예로 인도의 라가 음악(Shree Rag) 등을 제시하는데, 이 곡에서 박자가 뚜렷하지 않은 부분(알라프)이 등장하면 연주자들은 '탄푸리'라는 악기를 이용해 저마다 다른 템포로 연주한다는 것이 일례다.

저자는 밀고 당겨지는 리듬 속에서 '모든 연주자가 지닌 메트로놈이 의미 있다'는 사실을 이론적, 실례적으로 분석한다.



<곰출판·1만7000원>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수 목 장

삶의 마지막,  
한 그루 나무가 될  
당신을 기억합니다.